

# “말은 안 통해도 진심은 통한다는 것, 몽골 봉사에서 배웠죠”

## 광주여대 해외봉사단, 울란바토르 '122번' 학교서 재능기부

### 항공서비스·치위생과 학생·교직원 등 참여 학과공부도 미루며 두달간 공연·수업 준비

“몽골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승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현지 학생을 만났어요. 그 학생은 전 세계를 누비며 많은 사람을 만나겠다는 꿈이 있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몰라 답답해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제가 항공서비스학과에 다니는다고 하자 무척 부러워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승무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과 어떻게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지 알려주었더니 뭉클한 기분이었어요. 몽골에서 마지막 날 ‘마음이 따뜻한 한국 언니’들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한국에 가서 승무원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며 현지 학생은 물론 봉사단원들의 생각과 삶도 크게 달라진 거 같습니다.”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진재)는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122번' 학교에 교직원과 학생으로 구성된 해외봉사단 13명을 파견했다. 김경란 교수를 단장으로 한 이번 봉사단은 항공서비스학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경찰법학과, 미용학과, 유아교육과, 중등특수교육

과, 서비스경영학과 학생이 참여했다. 항공서비스학과 3학년으로 봉사단 팀장을 맡은 조아현(23)씨는 몽골에서 만난 8~17세 순수한 어린이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봉사단원들은 몽골 생활을 이야기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준비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특히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봉사를 위해 학과공부와 토익시험 준비를 미룬 채 옷차림이 두 달을 보낸다는 것은 큰 결심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간호학과 3학년 김미현(22)씨도 마찬가지였다.

“몽골에서 현지 학생들과 보낼 일주일간 봉사활동을 위해 지난 2개월간 수많은 밤샘공부를 즐겼어요. 간호학과, 항공서비스학과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숙회의까지 하면서 내실을 기했어요. 파견을 앞두고 어린이집을 방문해 저희가 준비한 수업을 미리 선보이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도 했습니다. 다들 취업준비에 바빠서 이런 일이

요. 하지만 긴 시간 노력한 덕분에 저희가 준비한 모든 과정이 끝날 때까지 현지 학생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했습니다.”

봉사단은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 참여한 만큼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보건교육과 구강교육에 이어 한복체험 및 풍선아트 시연 등이 진행됐다. 또한 가방이 부족해 손으로 책을 들고 다니는 몽골 학생들을 위해 봉사단이 미리 준비한 천으로 예코백도 직접 만들었다. 이중 미용학과에서 준비한 네일아트수업이 현지 여학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았다.

봉사단원들은 처음에는 양고기 등 냉식 음식과 침대에서 자는 생활이 힘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물이 부족해 숙소에서 5분 거리를 걸어서 공동 세면장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진심으로 다가오는 몽골 학생들을 보며 힘들다고 투정하기보다는 가진 것을 더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단원들은 몽골 학생들이 궁급해 하는 것을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 오전 9시 수업 시작 전부터 학생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끝난 이후에도 함께 시간을 보냈다. 봉사단원들은 수업 준비에 몰두하느라 몽골을 관광할 여유도 없었지만 더 소중한 인연을 맺었기에 잊지 못할 경험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경란(여·49) 단장은 짧은 만남이 한국과 몽골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는 것은 물론 그들이 내일을 준비하는



지난 7월 몽골 울란바토르로 해외봉사를 떠난 광주여대 봉사단(단장 김경란) 김미현(오른쪽 네 번째)씨가 현지 어린이들과 예코백 만들기 체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여대 제공>

데 커다란 이정표를 제시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두 나라 학생들이 보여준 ‘작은 기적’에 주목했다.

“저희가 다녀온 학교는 지난해 일본인들이 세운 학교예요. 건물 곳곳에 그려진 일장기가 낯설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이해할 수 있었죠. 몽골에 많은 돈을 투자해 학교를 지어준 것은 일본이예요. 저희 봉사단이 물질적인 선물은 많이 줄 수 없었지만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몽골을 떠나는 날, 몽골 학생들이 편지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국에서 온 고마운 선생님들을 남겨준 부모

님들과 한국이란 나라에 감사합니다’ 이번 해외봉사단 방문을 통해 몽골 학생들 가슴 속에는 학교를 세워준 일본보다 그들과 마음으로 교감했던 한국이란 나라가 뇌리에 더 강하게 남았다고 생각해요. 진심을 다한 봉사가 만든 작은 기적이죠.” <양세영기자 hot@kwangju.co.kr>

## 금호타이어, 지역아동과 모터스포츠 체험

금호타이어가 17일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린 ‘엑스타 슈퍼챌린지 제4전’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모터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지역 모터스포츠 활성화와 위해 다양한 모터스포츠 체험 행사를 열고 있는 금호타이어는 이번 행사에 광주·곡성공공 일직원과 가족 80여명과 신입사원 42명을 초대했다. 참가자들은 카트체험, 엑스타 슈퍼챌린지 경기 관람, 레이싱 모델과 포드

타임, F1 홍보관 견학 등을 통해 모터스포츠를 직접 접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나태현 문화홍보팀장은 “모터스포츠 체험활동을 통해 임직원과 지역민들이 모터스포츠를 조금 더 가깝게 느끼고 접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박진감 넘치는 모터스포츠의 재미를 만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룡기자 exian@



## 광주교대, 전라권역 다문화 어울림 캠프



광주교육대학교(총장 이정선) 다문화교육원은 최근 글로벌 인재로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자 나눔지기과 배움지기가 함께하는 ‘2014 전라권역 어울림 캠프’를 개최했다. <광주교대 제공>

## 조선대 국제여름학교서 한국 문화 체험



조선대학교(총장 서재홍)에서 오는 22일까지 3주간 열리는 국제여름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한 일본 대학생들이 체육관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조선대 제공>



## 아이돌 ‘헤일로’ 광주서 팬 사인회 가져

아이돌 그룹 ‘헤일로’가 지난 1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정문에서 광주 지역 팬들을 대상으로 팬사인회를 열었다.

이번 팬사인회에는 200여명의 팬과 고객이 몰렸으며 헤일로 멤버 6명(오운, 디노, 재용, 희전, 인형, 윤동)이 참석해 팬들과 즐거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6월 ‘38℃’라는 앨범으로 데뷔한 헤일로는 부드러운 남성미로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신인 아이돌 그룹이다.

특히 데뷔곡 ‘체온이 뜨거워’는 중독성 강한 쉬운 멜로디가 특징인 노래로 20대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메시지를 풀어쓴 가사가 인상적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 하축

▲하길영·장영자씨 장남 대경군 오경중(전 병무청·광주 관산구유스호스텔 관장)·이윤선씨 차녀 영화양=23일(토) 오후 2시 부산 해리웨딩홀 2층 컨벤션홀.

### 알림

▲‘금융컨설팅’ 채권·채무·재테크 무료 출장 상담=다중 채무·개인회생 및 파산 안배, 사업자 및 개인 채권 서류 검토 작성 대행, 재테크 절세 방법 상담 010-6392-4585.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가시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산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무로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펙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

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숙식보조 062-232-1313.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 모집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손님용 독방 및 침구제공, 아침 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광주국제교류센터 062-226-2734.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전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연 상담 062-351-1206.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혼성 합창단 모집. 062-675-5955.

▲전남담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회원=담양거주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무, 식품유통,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사단법인 호사랑넷 봉사단=뜸 교육에 관심있는 회원 교육생 모집. 매주 금요일. 062-369-1230.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원은=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충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0-9440-2512.

▲광주출세 클럽 수영 동호회원은=수영 무료로 지도해주며 30세 이상, 북구 거주자 환영 011-602-2278.

▲씨호크 레저스포츠클럽 동호회원은=페라라라이더, 행글라이더, 윈드서핑, 수상스키, 제트스키 등. 062-675-8722.

▲광주시 생활체육아구연합회 사회인 야구팀 ‘엑스칼리버’ 팀원은=야구에 관심과 자질 있는 30세~40세의 사회인(특히 투수, 포수) 011-609-9943, 010-2611-7787.

▲한국노후생애대안학교 9기 학생=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개월간 명리학, 생활영어, 한문, 노래, 노인상담심리학, 노후생애설계, 노후설계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 35명. 접수 8월 1일부터 27일까지 전화접수. 문의 062-223-1357.

▲광주향교 2014년 하계 한문강좌 및 예절교육 회원=7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월~금요일 오전 9~11시까지 2시간.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전자문 등 한문교육 및 예절 무료교육 062-672-7008.

▲맘보뷰엔터 살사동호회원=라틴댄스·살사·차차 등. 010-5136-0028.  
▲원불교 문화센터 회원=서예, 요가, 다도, 노래교실, 생활영어, 규방공예 등, 쌍촌동 원음방송국 062-232-7223~4.

### 부음

▲김영만씨 별세=형빈·옥빈·정빈·형남씨 부친상=발인 19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 062-231-8903.

<b>謹 上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b>	
<b>101호 故남진철 님(남/76세)</b> 子/子婦: 남정영/조진희, 남정호/김이영 女/婿: 남정미/김순경 •발인: 8월 19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b>102호 故고동철 님(남/68세)</b> 子: 고한덕, 고형민 女/婿: 정민정/유상원, 민형희 未亡人: 박현숙 •발인: 8월 19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
<b>401호 故서동희 님(남/64세)</b> 子: 서삼범, 서갑범 女/婿: 서광숙/이대식 未亡人: 박기숙 •발인: 8월 18일 •장지: 화산도원성명 •연락처: 227-4383	<b>402호 故조영순 님(여/75세)</b> 子/子婦: 양동원/이기영, 양동민/정남영 •발인: 8월 18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14
<b>孝 金호장례식장</b> http://www.mykumho.com	
<b>문의 (062)227-4000</b>	